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올해 1~2월 중국 경제 안정적 성장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로 올해 1~2월 공업 및 서비스업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 소비 및 투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신질적 생산력이 강화됨
- (공업) 규모(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5.9%, 이 중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9%, 장비제조업과 첨단제조업 증가율은 각각 10.6%, 9.1% 달성
- (서비스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5.6% 증가하여 전년 대비 0.4%p 상승
-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4.0% 증가한 8조 3,731억 위안으로 집계. 통신기기, 문화사무용품, 가구, 가전·음향기기 판매액은 각각 26.2%, 21.8%, 11.7%, 10.9% 증가
 -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7.3% 증가한 2조 2,763억 위안이며, 이 중 상품 소매판매액은 5.0% 증가한 1조 8,633억 위안으로 전체 소비재 소매판매액의 22.3%를 차지
- (투자) 고정자산 투자는 4.1% 증가한 5조 2,619억 위안, 이 중 부동산 개발투자를 제외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8.4%에 달함
- (무역) 화물 수출입 총액은 1.2% 감소한 6조 5,363억 위안, 이 중 수출은 3.4% 증가한 3조 8,812억 위안, 수입은 7.3% 감소한 2조 6,551억 위안임
- (CPI) 소비자물가지수는 0.1% 하락, 1월은 0.5% 상승하였으나 2월은 0.7% 하락

자료원 : 금융시보

<https://www.ceweekly.cn/news/important/2025/0317/469348.html>

2 환경보호장비 제조업, '1조 위안' 규모로 육성 계획

- 중국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 시장감독총국 등 부처는 '환경보호장비 제조업의 질적 성장 촉진 방안' 발표를 통해 환경보호장비 핵심기술 개발, 첨단기술 보급 확대, 성장동력 육성, 발전환경 최적화 등 4대 분야의 12가지 조치를 제시
 - * **환경보호장비** : 먼지제거 및 탈황 장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및 하·폐수 처리 장비 등
- 2027년까지 첨단 환경보호장비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중점 산업망을 보완하여 우위를 점한 장비산업은 국내 기업이 주도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 2030년까지 자주적인 환경기술장비 산업망을 구축하고, 환경장비 제조업은 기존 오염물질 처리에서 친환경·저탄소·순환발전 모델로 전환할 계획
- 유관 협회에 따르면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이후 환경보호장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6%에 근접, 2024년 생산액은 9,200억 위안임. 공업정보화부는 환경보호장비 제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조 위안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중국공정원 런홍창(任洪强) 원사는 현재 환경보호 제품은 저가 제품의 동질화 경쟁이 치열하고 첨단기술장비 응용·보급이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며, 중국은 선진국 대비 제품의 고급화·모듈화·표준화·스마트화 등 방면에서 격차가 크다고 분석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2503/13/t20250313_39318073.shtml

3 2024년 전시산업 활발...해외전시회 참가건수 대폭 증가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발표한 '중국 전시경제 발전보고서(2024)'에 따르면 작년 경제·무역 분야 전시회는 총 3,844건 개최, 전시면적은 총 1.55억 평방미터로 집계
- 산업·과학기술 분야 전시회는 전년 대비 63.4% 증가한 1,064건으로 전체 개최건수의 27.7% 차지, 2023년 대비 비중은 11.1%p 증가
-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산업은 신질적 생산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전략적 신산업과 미래산업 등이 인기 콘텐츠로 급부상,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등 신기술 응용 및 보급은 전시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한다고 평가
- 2024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에서는 세계 최초 AI 골절 수술 로봇, 메이탄(美团)그룹의 차세대 자율주행 배송차량 및 무인기, 징둥(京东)그룹의 가상물류단지 등을 포함, 총 111개 기업·기관에서 디지털·인공지능 등 분야 219건의 기술·제품을 선보였고, 그중 신제품 출시는 110건에 달함

- 제2회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에서는 첨단제조업 공급망 전시구역을 신설, 제품 연구개발 및 디자인, 신소재 활용, 핵심부품 가공, 스마트 제조, 고급 장비 등을 전시. 해외기업의 참가 비중은 32%로 전회 대비 6%p 상승했고, 특히 유럽과 북미 기업이 전체 해외기업의 50% 이상을 차지
- 2024년 중국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건수는 전년 대비 29.4% 증가한 1,166건, 참가기업은 5만 개사, 전시면적은 70만 평방미터로 전년 대비 각각 29.4%, 26.3%, 23.0% 증가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expo.ce.cn/gd/202503/14/t20250314_39319373.shtml

4 中, 스마트 양로산업 급성장... ‘양로 로봇’ 도입 추진

- 중상(中商)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스마트 양로(노인 돌봄) 시장규모는 7조 2,100억 위안에 달할 전망. 양로 로봇은 실버족의 건강 측정, 의료·보건, 정서 관리, 보행 보조 등의 수요를 충족, 일부 지역의 양로시설은 이미 양로 로봇을 도입
- 3월 6일 산시성(陝西省) 시안시 민정국은 재정국과 공동으로 ‘스마트 양로 제품 보급 및 응용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양로시설에서 과학기술을 접목한 노인용 제품을 구입할 경우 거래가의 30%에 달하는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
- 올해 2월 항저우시 모 지역단지는 ‘로봇건’ 테스트에 착수, 3월 10일 충칭시 제1사회양로원은 ‘스마트 양로 정서 관리 로봇’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

〈양로 로봇 사진 정보〉

스마트 양로 정서 관리 로봇	지역단지 노인과 소통하는 로봇건	AI 빅모델 양로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명 : 페이페이(裴裴) - 회사 : Mashang Consumer Finance - 특징 : 정서 관리·감정 케어, 건강 모니터링, 디지털 교육, 오락·생활 보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명 : U1(小西) - 회사 : Westlake Robotics - 특징 : 무게 14kg, 이동속도 2~3m/s, 최대 8kg 운반, 12도 이상 경사로 등판, 18cm 높이 계단 오르기, 노인 돌봄에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명 : 샤오시(小希) - 회사 : FUBAOROBOT - 특징 : 건강 검사, 만성질환 관리, 감정 케어 및 정서적 교류, 보안 및 안전관리 기능 탑재

- 사회과학원 우잉(吴莹) 연구원은 양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 양로 산업은 제품 및 서비스 범위 확대, △가정별 양로환경 개선(노인 활동공간 조성, 노인 친화적 주택 개조 등), △지역사회 양로환경 개선(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양로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당부

자료원 : 증권일보, 인민일보, 차오신보(潮新闻), 인민망

http://www.ce.cn/cysc/tech/gd2012/202503/13/t20250313_39317986.shtml

<http://cq.people.com.cn/n2/2025/0311/c367643-41160497.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826390221463676023&wfr=spider&for=pc>

<http://vip.people.com.cn/albumsDetail?aid=1910966>

5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시장, '1조 위안' 규모로 성장 전망

- 최근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 커넥티드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스마트폰, 인공지능 컴퓨터, 스마트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및 스마트 제조 장비산업 육성을 언급
-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은 스마트 단말기 소비를 확대하고, 스마트 단말기 신제품 및 히트상품의 출시를 제품 교체를 가속화하여,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시장규모는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재정부는 2025년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금으로 810억 위안을 배정, 지방정부도 소비촉진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로 연구기관들은 각 지역의 보조금 지원 품목 확대에 따라 스마트가전, 서비스 로봇, 스마트 홈 등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5'에서는 화웨이의 '3단 폴더블 스마트폰', 샤오미의 '스마트 전기차', 레노버의 'AI PC', 유니트리오의 '휴머노이드 로봇', 샤오핑의 '플라잉카' 등 제품이 주목받는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의 인기가 급부상
- 징둥(京东)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인공지능 스마트폰·컴퓨터·학습기·키보드·마우스 등 인공지능 하드웨어 제품의 판매액이 급증, 지난 한 달간 인공지능 로봇의 거래액은 120% 이상 증가
- 주목할 점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 커넥티드 신에너지 자동차'를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로 정의하여 향후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
 - 최근 비야디, 샤오핑, 지리 등 자동차 기업은 스마트 드라이빙 평등화(智驾平权)* 계획을 발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비야디는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智驾系统)을 7만 위안급 모델에 탑재하고, 향후 첨단 드라이빙 시스템(高阶智驾)은 안전벨트, 에어백과 같은 필수장비가 될 것이라고 밝힘
- * 스마트 드라이빙 평등화(智驾平权) :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해 프리미엄 차종에만 탑재하던 첨단 드라이빙 시스템을 다양한 가격대의 차종에 보급시켜 자율주행 기술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 샤오미의 스마트 전기차 'SU7 울트라'는 출시 3일간 판매량 1만 대를 기록, 화웨이의 '홍명즈싱(鸿蒙智行) 즈제(智界) R7'은 출시 5개월간 누적 판매량 8만 대를 돌파, 2월에는 30만 위안대 신에너지 SUV 판매량 1위를 차지. 화웨이의 'Mate X5'는 폴더블폰 시장점유율 28.1%에 도달

* **홍명즈싱(鸿蒙智行, Harmony Intelligent Mobility Alliance)** : 화웨이(华为)가 운영하는 홍명 스마트 자동차 기술생태 연맹

-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단말기 산업 발전 가속화 계획(2025~2026년)'에 따르면 선전시는 2026년까지 산업 규모를 1조 위안으로 확대, 유망기업 10개 사 이상 육성, 인공지능 단말기 제품 1.5억 대 생산, 이 중 휴대폰·컴퓨터·인공지능 빅모델 일체형 기기(大模型一体机), 웨어러블 기기 등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히트상품을 출시할 계획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jjckb.xinhuanet.com/20250314/8ea4f5c5538149f0b5a9dca88007a1a3/c.html>

6 중국 화장품 브랜드, 향수 시장 진출 가속화

- 최근 중국 화장품 브랜드는 향수 시장 진출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 로컬 화장품 브랜드인 마오거핑(毛戈平)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13종의 향수 제품을 등록했으며, 칸스(韩束)와 프로야(珀莱雅)도 올해 향수 제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
- 상하이자화(上海家化)는 전년도 적자를 기록했고, 칸스는 올해 1월 더우인(抖音) 플랫폼 판매액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로컬브랜드가 경쟁적으로 향수 사업에 뛰어들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인 소비자들은 향수를 구매하는 소비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해외 명품의 인지도가 여전히 높은 점 등은 중국 화장품 브랜드가 향수 시장을 개척하는데 난관으로 작용
- 아이미디어리서치(艾媒咨询)에 따르면 미국, 유럽 시장의 향수 보급률은 각각 50%, 42%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5%에 불과. 한편 2025년 중국의 향수 시장규모는 515억 위안에 이를 전망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826369467500881210&wfr=spider&for=pc>